

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감”… 대통령 거부권 호소

일자리 등 경영부담 주장
경총 “야당 역사적 책임 져야”
상의 “산업현장 질서 흔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계가 격노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같은 법안 처리 강행은 야당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법 개정이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

게 경제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경총은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제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멎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특히,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친환경소재 사업 로드맵 공개

“모빌리티 사업, 수소차 밸류체인 확장”

이차전지 등 미래소재기업 체질 개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친환경 소재 사업 성장 로드맵을 공개하고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 8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된 ‘친환경 소재 밸류데이’에 참가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벌 사업 부문장은 “친환경소재 사업의 203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각각 2배, 4배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계인 글로벌 사업부 문장을 비롯해 김병휘 친환경본부장,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노민용 사장과 기관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신설한 ‘밸류데이’는 주요 경영층이 투자자와 증권업계 전문가들에게 회사의 성장 계획을 직접 소개하는 IR행사로, 지난 7월 ‘에너지 밸류데이’ 운영 이후 두 번째 자리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부터 ‘친환경’을 성장축으로 선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친환경 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한 이후 갖는 첫 대외 소통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친환경 사업은 크게 ▲ 친환경 에너지강재 ▲ 친환경 모빌리티 ▲ 친환경 이차전지 소재 ▲ 친환경 철강 원료 등 4가지 사업군으로 나뉜다.

우선 에너지강재 사업에 대해서는 2030년 223만톤의 판매 목표를 수립했



지난 8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된 ‘친환경소재 밸류데이’서 회사를 소개하는 이계인 글로벌사업부문장

다. 또 미국 해상 탄소저장소 개발, 말레이시아 해상 탄소포집 및 활용(CCU S) 플랫폼 프로젝트 수주, 에어 배터리 전문사 철강재 공급 등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모빌리티 사업은 수소차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아울러 배터리, 부품, 모터, 차체를 통합한 패키지 수주를 계획했다.

구동모터코어사업의 경우 다중모터가 탑재되는 전기차의 글로벌 확대 추세를 반영해 2035년까지 약 6800억원을 투자해 ‘10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서는 2030년 35만톤 공급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이는 기존보다 10배 규모라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철강 원료 사업은 철스크랩 확보량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2030년까지 총 26기의 글로벌 수집기지를 구축해 포스코의 수요 전망치인 500만톤 공급 체제를 적시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철스크랩은 탄소중립을 위해 도입되는 저탄소 전기로의 필수 원료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케미칼, 흑자전환 성공… 영업이익 281억

3분기 실적 공시… 매출 4.8조
첨단소재사업 등 수익성 개선

롯데케미칼이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를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81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32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기초소재사업은 매출액 2조5829억원, 영업손실 242억원을 기록했다. 수요 약세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의 긍정적 레깅 효과 및 가동 효율화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롯데케미칼 측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 원료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향후 공급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첨단소재사업은 매출액 1조684억원, 영업이익 755억원을 거뒀다.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 및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영향으로 수요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타이탄은 매출액 5564억원, 영업손실 77억원을 올리며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의 긍정적 레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료가 불확실성

및 수요 회복 지연으로 약세 시황이 전망되나, 가동률을 최적화함으로써 수익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LC USA는 매출액 1213억원, 영업손실 160억원을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원료가 하향안정화 추세로 4분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케미칼은 “급격한 국제 정세 및 화학산업 변화에 맞춰 기존 사업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확대 등 수익성 최대 확보와 효율성 최적화를 추진하고 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및 리사이클 사업 등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韓, 중요한 시장… 김해~헬싱키 노선 취항 최우선 과제”

핀에어 창립 100주년 기자간담회
“대규모 투자, 네트워크 확장 지속”

핀란드 국영 항공사 핀에어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시아시장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핀에어는 한국 시장 중요성을 언급하며 잠정 중단된 김해~헬싱키(핀란드) 노선 취항 준비와 함께 한국인 채용도 확대하고 있다.

핀에어는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핀에어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핀에어는 한국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핀에어는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올해 6월 흑자전환을 이뤘으며 현재 인천~헬싱키 노선을 주 7회 증편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



(왼쪽부터) 김동환 핀에어 한국 지사장, 올레 오버 핀에어 상용 부문 수석 부사장, 엔니 수오멜라 핀에어 글로벌 세일즈 & 채널 운영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영공 폐쇄를 딛고 이뤄낸 해거라 그 의미가 깊다.

올레 오버 핀에어 상용 부문 수석 부사장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장 등의 전략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며 이러한 기초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장은 “러시아 영공 폐쇄로 인천~헬싱키 비행시간도 45% 가량 늘어난 상태”라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으며 상황만 해소되면 김해~헬싱키 노선 취항은 핀에어가 새롭게 취항해야 할 장거리 노선의 최우선에 있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 “갤럭시 Z 플립5로 원신 즐기세요”

강남서 ‘원신 프리미엄 라운지’ 운영

삼성전자가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로 즐기는 원신 프리미엄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원신 프리미엄 라운지’는 24일까지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Z 플립5’로 글로벌 인기 게임 ‘원신’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원신 팬들을 위해 4층 전채를 다채로운 게임 콘텐츠와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다. ▲ 빅스비 닐루 보이 스 체험존 ▲ 원신 게임 체험존 ▲ 닐루-감우 포토존 ▲ 미니게임존 ▲ 원신 굿즈 판매존 등을 마련했으며, 방문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 강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입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원신 게임 체험존은 ‘갤럭시 Z 폴드5’로 원신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게 구성됐다”며 “새롭게 업데이트된 원신 4.2 버전의 모든 캐릭터들을 최고 레벨 상태로 즐길 수 있



지난 8일 삼성 강남 ‘원신 프리미엄 라운지’의 ‘원신 굿즈 판매존’을 방문한 고객들/삼성전자

다”고 설명했다.

원신 굿즈 판매존에는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원신 신규 굿즈 11종과 60여종의 상시 굿즈를 판매한다. 3층에 위치한 케이스 커스텀 스튜디오에는 6종의 원신 스페셜 케이스가 판매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24일까지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 Z 폴드5(256GB/512GB)’와 ‘갤럭시 S23 울트라(1TB)’를 구매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스토어 쿠폰팩 ▲ 원신 닐루 스페셜 UX테마 ▲ 빅스비 닐루 보이 스 사용권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